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퉁瞠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 282. 1662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제1독서 이사 9,1-6 제2독서 티토 2,11-14 복음 루카 2,1-14



성가 입당: 성가대 특송 "O Come, O Come, Emmanuel"
 예물준비:107 영성체:101
 파견: 성가대 특송 "Carol of the Bells"

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사

제1독서 이사 52,7-10 제2독서 히브 1,1-6 복음 요한 1,1-18



성가 입당:102 예물준비:109 영성체:108
 파견: 성가대 특송 "Carol of the Bells"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임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12월 24일)**연미사 지향**

- 노을선 루시아

생미사 지향

- 민사현 베드로, 민사룡 가브리엘(소망을 이루길)
- 백이백 아오스팅 건강을 위하여

미사 봉헌(12월 25일)**생미사 지향**

- 임국빈 토마스아퀴나스 성가정을 위하여
- 손진숙 윤리안나, 최상윤 이냐시오
- 김정현 루시아, 박수환 보나벤투라(영세 축하)
- 이규완 안토니오 생일 축하
- 김영희 베드로, 이명숙 루시아, 김일정의 영육간의 건강과 축복

- 당일 미사신청 가능합니다. 미사 전까지 신청해 주세요.
 (신청: Sr. 마리루시)

- 가난한 이들을 위한 2차 현금(교구봉헌) 있습니다.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12월 24일	장혜윤	강호영	민재인	민재인	유정옥 이영혜 진서윤	한서희 이예진 김수현 양지수 조성윤
12월 25일	김유화	민완준	이경자	이경자	김종선 유정옥 정다경	한서희 이예진 김수현 양지수 조성윤

<정순택 대주교 2025 성탄 메시지>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이사 9,1)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탄을 맞아 강생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에게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삶의 상처와 외로움, 고립과 불평등 속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의 빛이 넉넉히 스며들기를 청합니다.

올해 우리는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성탄을 맞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우리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걸어오신 주님을 더욱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의 신비는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주며, 구원의 희망을 다시금 밝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빛의 부르심에 응답해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듯, 우리도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작은 사랑의 불빛을 들고 희망의 여정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고통과 외로움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곧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일상에서 나누는 작은 친절과 한 사람을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바로 성탄의 신비를 드러내는 가장 구체적인 표지입니다.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마태 1,23)는 약속은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갈 때 더욱 선명히 드러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장 깊은 근거입니다. 인간은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도록 창조되었으며, 그 친교는 이웃과의 연대와 나눔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은 이 친교를 약하게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며 공동체까지 흔들리게 합니다.(창세기 3-4장, 11장 참조) 바로 이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스스로 낫아지시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어둠 속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은총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루카 3,4; 이사야 40,3)라고 외칩니다. 성탄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교만을 낮추고, 분열과 단절의 골짜기를 메우며, 서로를 향한 굳은 마음을 평화의 ‘온전함’(shalom)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세상은 경쟁과 힘의 논리에 흔들리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눔과 섬김의 길이 인간의 존엄을 꽂피우는 길임을 보여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성탄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시노드’의 신비이며, 교회는 이러한 동행을 세상 안에서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희년 동안 우리가 익힌 순례자의 감수성은 이제 2026년 시노드 이행 단계를 향한 ‘함께 걸음’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성장 안에서 ‘함께 걸어가며’ 세상을 향해 ‘선교하는 시노드 교회’, 즉 ‘하느님과 이웃과 이루는 친교의 교회’이며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의 기쁨을 살고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꾸준히 자라나야 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 마리아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합시다. 오늘 하루, 우리 곁의 누군가에게 사랑의 한 걸음을 먼저 내딛는 용기를 냅시다. 우리의 작은 응답이 이 시대의 어둠 속에 성탄의 빛을 다시 피워올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이 거룩한 밤, 새 희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의 은총이 특히 가장 외지고 어두운 곳에 먼저, 그리고 충만히 내리기를 빕니다.